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별생각 없이 리모컨을 돌린다. 유독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 같은 시간에 무려 다섯 개 채널에서 나오기도 한다. 하도 자주 나오니 조금이라도 보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처럼 연속성이 없으니 부담도 없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내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된다. 나처럼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는 분들이 꽤 많다.

보면서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 대체 왜 저것을 보고 있는 건가? 도대체 재미라고는 있을 수가 없잖은가. 출연자는 달랑 두 명뿐이다. 예능인이 산속에 홀로 사는 나이 든 남성(아주 가끔 여성도 있지만)을 찾아가 2박 3일을 보낸다. 산속 사람만 달라질 뿐 대동소이하다. 나물이 나약초나 버섯을 채집한다. 나무를 하거나 오르거나 옮긴다. 밭에 무엇을 심거나

진정한 힐링

풀을 맨다. 잡거나 낚시하거나 사냥한다. 그리고 푸짐하게 먹는다. 사워라고 말하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목욕 장면도 특이하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기이한 언행? 독특하다는 것 말고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분들이 낚시 연기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글로발한 자연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비하면 참 소박한 풍경이다.

모든 힐링(치유)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의 짜깁기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잠깐 행복의 의미를 전하는 프로그램'들 말이다. 세계를 찾아다니는 글로벌여행으로 유명한 두 프로그램도 3분 1은 오지를 찾아다닌다. 세계의 오지에서 산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이들을 만나다. 무수한 '먹방' 프로그램도 궤를 같이한다. 밥에 먹는 장면만 떼어 보면 '세끼' 류와 판박이다. 시골 가서 시골 사람 만나는 '고향' 류와도 크게 다를 것 없다. 그들이 힘든 일을 할 때는 '체험' 류를 방불케 한다. 시련 이야기가 꼭 나오니 '인생' 류와도 상통한다. '동물' 류 예능과 비슷한 장면도

적잖다. 솔하게 제작되고 방영되었던(중인) 소위 '힐링' 프로의 틀리세(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장면)만 모아 가장 저렴하게 만든 듯하다.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말하는 힐링은 '시골 가서 맛있는 거 해 먹고 일도 좀 하고 놀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주 본다'는 자체가 착각이 아닐까. 여러 채널에서 무수히 재방송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자 하는 시청자가 많아서 그것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실은 돈 문제. 무수한 채널은 자체 제작으로 24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 저렴한 프로그램을 사다가 수시로 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렴한 콘텐츠는 없을 데다, 싸게 만든 것이니까 싸게 사서 마구 틀 수 있다.

연출된 촬영과 선정적 편집과 그에 따른 조작 의혹과 비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조작이든 왜곡이든 사실이든, 아무튼 '힐링' 류가 시청자의 마음을 자극한다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 때문일 데다.

사람은 문득문득 꿈꾼다. 사회와 사람들로 부터 자유로워져, 심지어 가족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져, 무인도 같은 곳에서 홀로 유유자적 살고 싶다.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삶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자연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힐링 프로는 자연을 찾아간다. 그런 동경은 말 그대로 동경일 뿐이다. 현대인의 생존 필수품(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 등)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 이상 빈약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해 주는 방송이라도 본다. 그런데 나는 정말 '힐링'하고 있는 걸까? 힐링하고 있다고 그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한 삶에 즐거움과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힐링일 데다. 대부분의 사람이 '힐링'하지 못하는 건 자연에 못 가서가 아니다. 끝없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데다, 끝없이 노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휴식이 불가능하다. 굳이 자연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책하고 노는 게 진정한 힐링일 데다. 독서는 노동을 멈추게 하고, 마음만은 특관층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社說

후안무치 전두환 호의호식에 분노한다

전두환 씨가 어제 12·12쿠테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즐기는 장면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그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다.

임한술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이 군사 쿠테타 주역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동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두 시간가량 이어진 오찬 참석자는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열 명이였다.

이들은 사스핀이 포함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고, 전 씨는 대화를 주도하며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고 와인 잔을 부딪쳤다고 한다. 임 부대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 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동석자가 제지하면서 전 씨

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 씨의 오찬 소식이 전해진 이날 5·18 관련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 씨를 즉시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며 전 씨가 수형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조형물을 설치했다.

전 씨 등 신군부는 꼭 40년 전 군인의 사명과 의무를 저버리고 탐욕과 권력 쟁취를 위해 군사 반란을 자행했다. 그의 쿠테타는 80년 광주 학살로 이어져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자숙은커녕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을 일삼으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의호식하고 있다. 반성 없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려면 5·18 진상 규명을 서둘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미세먼지 대책 공공기관이 외면해서야

광주·전남 지역에 올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공포를 상징하는 '삼한사미'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광주·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엇그제 광주시 농성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광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에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라는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광주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47.0%가 승용차·버스·화물차 등 도로 이용 오염원이라는 2017년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지난 1일부터 광주 지역 186개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만 해도 그렇다. 모범을 보여 할 대상 공무원들이 청사 밖 골목에 주차하는 등 스스로 차량 2부제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광공서 인근 거주 주민들이

2부제 시행 이후 동네 골목길까지 주차장이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겠는가. 2부제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세먼지는 복합적인 요인이 뒤섞여 있어 왜든나마식 해법이 나오기 힘든 난제인 것은 분명하다. 당장 미세먼지 악화 시기를 앞두고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원을 적극 들추내고 체계적인 감소 대책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 시민의 미세먼지 줄이기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한데 정부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기관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어찌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공직사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하다.

종교칼럼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자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제주도 여행 시 차량을 렌트하였다. 차량 번호가 제주 허로 시작한다. 모두 제주 허 씨가 된다. 차량을 반납할 때 굵힌 것이 있으면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연료도 렌트할 때만큼의 양만큼 보충하든지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안내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일행은 없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이다. 나의 영혼이 현재의 나의 육신을 렌트해서 살고 있다. 어디에서 렌트했을까? 염라정에서 렌트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다 사용했으면 염라정 염라대왕에게 육신 반납을 해야 한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만 있고 육신이 없는 것을

귀신이라 하고, 영혼은 없고 육신만 있는 것을 시체라고 한다. 지금의 나는 나의 육신이 영혼 체험을 하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육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이 끝나면 이 육신을 반납해야 한다.

염라대왕은 한 발로는 물소를 밟고 있고, 또 한 발로는 사람의 사체를 밟고 있다. 물소는 탐욕과 무지를 상징하고 인간의 사체는 아만(我慢)을 상징한다. 차량을 렌트할 때 상처 난 것은 수리하고 반납하듯이 이 육신도 반납할 때 탐욕과 무지 그리고 야지를 다 없애고 반납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으면 염라대왕에게 변상을 해야 한다. 염라대왕은 수리를 하지 않은 심신을 반납하면 죄를 주지만, 자신의 수리만 잘하고 반납하면 우리는 염라대왕과 상관없이 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해년을 보내며 그때때 수리를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꺼번에 수리하려면 목은 때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다. 알면서 짓는 죄는 아집이며 모르고 짓는 죄는 무지이다. 알고 짓는 죄는 언젠가 고쳐지지

만 모르고 짓는 죄는 고칠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다.

상처 난 차량을 수리하듯 마음의 무지와 야지를 없애는 공부를 원불교에서는 참회라 한다. 참회(懺悔)의 참(懺)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요, 회(悔)는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의 뜻이 깃들어 있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는 "참회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의 길을 개척해 가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가는 초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참회는 뉘우치고 속죄하는 의미보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 더 많다. 때문에 무슨 일을 잘못해서 뉘우치고 속죄하는 의미에서 참회하기보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와 참회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균 21일을 반복해야 습관이 바뀐다고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21일간 계속해야 몸에서 변화가 생겨 신경을 안 써도 몸이 자동적으로 5시에 눈이 떠진다고 한다.

좋은 습관은 듣기가 어렵고 나쁜 습관은 듣기가 쉽다. 좋은 습관을 듣이기 위해서는 마음 속의 탐진치(貪瞋癡)라는 삼독심을 없애야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모든 욕심을 놓아야 좋은 습관이 들며, 좋은 습관이 들어야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보성 대원사 연지문에 왕 목탁이 걸려 있다. 두 손으로 목탁을 잡고 이마로 세 번 치면서 염불을 하라고 안내한다.

나쁜 기억 사라져라. 나미아미타불, 나의 지혜 밝아져라. 나미아미타불, 나의 원수 잘 되거라. 나미아미타불.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 주고 불평을 갖게 해 주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고 하였으며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죄를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고 하였다.

2019년 기해년을 마감하면서 육신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마음의 삼독심을 없애는 참회의 기도로서 마음 속의 무지와 아집이라는 어둠을 걷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

기 고

4·19 혁명 두 열사, 하늘과 땅 차이였다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

2020년 4·19 혁명 60주년이다.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 중앙대학교 3학년으로 앞장섰다. 4·19 혁명 때 대학생 중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여섯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지금까지도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4·19 혁명사를 후세에 제대로 남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23년 전 필자는 떨어져 있었던 4·19 혁명 영혼 부부 김태년 열사와 여학생 서현무 열사를 합장시켜 마스크의 주먹을 받기도 하였다. 열사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초, 수소문하여 어렵사리 순천고등학교 출신인 후배 송규석 위령비(과역 초교 정문 앞)를 찾아 참배했다. 선배가 아닌 산 자로서 먼저 행겨야 했다. 60여

년간 드러나지 않아, 그의 이름을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나 모교 순천고등학교와 동창회 사무실로 문의한 바 1959년 졸업생 중 송규석(宋圭錫) 한자까지 같은 동성동명(同姓同名)이 세 명이나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이 4·19 혁명 때 희생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에 먹먹한 아픔이 밀려왔다.

반면 단양군은 후배인 자영헌 열사를 추모하는 열정과 정성이 대단했다. 이를 직접 보고자 지난 10월 27일 단양을 대성산에 있는 4·19 혁명 민주금지탑과 그곳에서 11.2km 떨어진 단성면에 있는 지열사 모교 단양공고 교정에 세워진 추모비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됐지만 두 후배의 사후는 너무 달랐다. 지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단양에서 4·19 혁명 추모제를 열고, 그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단양공고 동창회가 주관하여 2006년 화강암으로 4·19 혁명 '민주금지탑'을 세웠다. 그곳에는 그의 사진, 생애, 경과 보고와 중앙대학교 총장의 헌사까지 기록되었다. 4·19 혁명 정신을 그대로 담아 단양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송양받고 있다. 그 기념탑 앞에 서니 숙연

함과 동시에, 단양이 역시 충절 고장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유를 찾자고 외치며 지 열사와 함께 목숨을 바친 송규석 열사는 추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4·19 혁명의 의로운 희생이 기억 속에 사라져 갔다. 잊혀진 송 열사의 쓸쓸한 죽음에 빛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다.

고흥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구국에 앞장섰던 고장이다. 임·정 양란 충훈 의사, 항일 애국 지사를 비롯한 반공 충훈 열사를 배출한 역사의 고장이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 찬란했던 문화 유산이 조상들의 열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더 훼손되고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2016년 12월 고흥문화원에서는 1500여 쪽에 달하는 '마을 유래지'를 펴냈다. 이 책자를 보면

과역면 석봉리 봉촌 마을은 송 열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이 지역에 알려진 인물로 면의원 송주성을 비롯하여 20명이 등재되어 있다. 송 열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고흥 현충공원에 세워진 '현충탑' 후면에 어렴풋이 학생 운동자 '송규석'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모교 과역초교 정문 앞에 56년 전 과역면민들이 세워 준 송규석 군의 위령비

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비문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피를 토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배우는 학도여, 길가는 나그네여 / 여가 뭣다 피고 떨어진 꽃이 있도오. / 이 땅의 자유가 그림기에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 그날의 총탄 앞에 맨가슴을 헤치고 뛰어 갔더래오 / 청춘을 불태워 피 거름으로 가꾼 이 땅 위해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하도오 / 배우는 학도여 길가는 나그네여 / 1964년 9월"이라고 새겨져 있다.

송 열사 비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 현대사의 슬픈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비문에 적힌 대로 뜻 있는 길손이 볼 수 있도록, 길 안내 표지판(현충 시설물) 하나라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필자의 절규(絶叫)가 티끌 만한 물방울이 대해를 이루듯이, 송 열사 위령비와 현충탑에 새겨진 이름 석자를 단조로 삼아 단양의 민주금지탑이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송 열사의 고향 그리고 모교인 과역초교, 순천고등학교에서 내년 4·19 혁명 60주년 때 작은 송 열사 흉상, 더 나아가 추모식이라도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혁명 운동에 함께 참여한 산 자들의 도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無等鼓

1986년 멕시코월드컵 8강전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 이 한 경기에서 마라도나는 월드컵 89년 역사에서 나온 모든 골(2546골) 가운데 최고의 골과 최악의 골을 다 넣었다. 최고의 골은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잡아 60여m를 질주한 뒤 수비수 다섯 명과 골키퍼까지 따돌리고 넣은 원더골이다.

최악의 골은 이른바 '신의 손' 논란을 일으킨 골. 전반 4분에 머리가 아닌 손으로 쳐서 넣었는데, 지금처럼 VAR이 있었다면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라도나의 말이

결정적이다. "절반은 나의 손을 맞고, 절반은 신의 손을 맞고 들어갔다." 경기 결과는 2대 1로 아르헨티나의 승리. 영국과 벌인 '포클랜드 전쟁' 패배의 아픔을 1주일 만에 축구로 되갚으며 월드컵을 차지했다.

마라도나의 환상적인 드리블 골은 나중에 호나우두나 메시 등에 의해 재현됐다. 그 중 가장 긴 것은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질주해 만든 조지 웨아의 82m 골이었다. 웨아는 은퇴 뒤 정계에 입문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대선에 출마했고, 당

선인 후 대통령 신분으로 국가대표 A매치에 출전하기도 했다.

지금 여러 '축구 전설'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9일 손흥민이 넣은 골 때문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페널티 지역으로부터 상대 번리 지역 한 가운데를 73m 단독 드리블로 돌파해 골을 완성했다. 향후 10년 이상 리플레이 될 이 골에 대해 '올해 최고의 골' '푸스카스상 후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등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교 축구 왕중왕전

에서 나왔던 급속고 엄지성의 '닭은팔 골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다.

팬들은 골 장면으로 선수를 기억한다.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환상적이고 멋진 골'은 팬들의 머리에 오래오래 남는다. 상대 진영 한복판을 돌파하는 이번 골 장면은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이야기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상대할 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비가 위축되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마라도나·호나우두·메시도 그랬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된다.

/유재만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국문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사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